

노동시장 동향



이 남 철

인적자원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1. 2000년 1, 2월 고용동향

2000년 1, 2월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1,257천명, 21,271천명으로 1999년 전년동월 대비 529천명(2.6%), 648천명(3.1%)이 증가하였다. 또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1999년 전년동월 대비 1.1%, 1.0%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1, 2월 각각 59.1%, 59.2%로 1999년 전년동월 대비 각각 0.8%, 1.2%가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8%로

전년동월 대비 0.4%, 여자는 46.2%로 1.9% 증가하였다(〈표 1〉 참조).

1, 2월 취업자는 각각 20,131천명, 20,149천명으로 1999년 동월 대비 각각 6.1%, 6.9%가 늘었으며, 2000년 2월 중 실업자는 1,121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6천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전월 대비 실업자 감소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예년과 달리 취업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1999년 1/4분기부터 실업자의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실업

〈표 1〉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15세 이상 인구	35,756(1.1)	35,616(1.2)	35,715(1.2)	35,820(1.1)	35,910(1.0)	35,959(1.1)	35,986(1.0)
경제활동인구	21,634(0.8)	20,854(-0.4)	21,797(0.3)	21,914(1.2)	21,972(2.1)	21,257(2.6)	21,271(3.1)
경제활동참가율	60.5(-)	58.6(-0.9)	61.0(-0.5)	61.2(0.1)	61.2(-)	59.1(0.8)	59.2(1.2)
취업자수	20,281(1.4)	19,105(-3.3)	20,362(0.6)	20,695(3.2)	20,962(5.2)	20,131(6.1)	20,149(6.9)
실업자수	1,353(-7.4)	1,749(48.3)	1,435(-3.1)	1,220(-23.6)	1,011(-36.3)	1,127(-36.0)	1,121(-37.1)
실업률	6.3(-)	8.4(2.8)	6.6(-0.2)	5.6(-1.8)	4.6(-)	5.3(-)	5.3(-)
비경제활동인구	14,131(1.6)	14,762(3.6)	13,918(2.5)	13,906(0.9)	13,938(-0.6)	14,702 (-1.0)	14,716(-1.8)

주 . ()안은 전년동기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매월 보도자료),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2월.

를 8.4%에서부터 1999년 3/4분기에는 5.6%까지 낮아졌다. 2000년 1, 2월의 실업률은 모두 5.3%로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 2월 각각 14,702천명, 14,71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54천명(-1.0%), 277천명(-1.8%) 감소하였다.

가.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000년 1, 2월에서 나타난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표 2>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2월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에서 제조업 399천명(1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2천명(6.6%), 도소매·음식숙박업 292천명(5.2%), 건설업 131천명(10.8%)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음식료품, 섬유제품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32천명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93천명, 건설업 45천명의 취업자 감소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임시·일용직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49천명, 제조업 24천명, 건설업 20천명 부문 일용근로자의 감소로 일용직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전월 대비 취업 증가(119천명, 2.56%)는 소프트웨어개발·컴퓨터설비 등 벤처산업의 창업 확산, 경영·기술 관련 컨설팅 및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시행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 2월 중 공공근로취업자는 전월 대비 67천명 증가한 357천명이

<표 2>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농림어업	2,349(-5.3)	1,839(-12.1)	2,591(-7.5)	2,596(-3.8)	2,371(1.8)	1,750(1.3)	1,796(3.9)
광공업	4,026(2.7)	3,849(-6.6)	3,942(1.7)	4,061(7.1)	4,252(9.4)	4,233(9.9)	4,200(10.4)
- 제조업	4,006(2.8)	3,828(-6.6)	3,922(1.7)	4,039(7.1)	4,233(9.6)	4,214(10.0)	4,182(1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906(2.3)	13,418(-0.9)	13,829(1.9)	14,037(3.5)	14,339(4.6)	14,148(5.7)	14,153(6.3)
- 건설업	1,476(-6.5)	1,479(-24.1)	1,479(-8.7)	1,561(2.0)	1,589(7.0)	1,390(9.2)	1,345(10.8)
- 도소매, 음식숙박업	5,274(2.7)	5,598(0.1)	5,632(1.2)	5,755(3.9)	5,913(5.7)	5,974(6.2)	5,881(5.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719(6.0)	4,608(7.1)	4,748(8.2)	4,720(5.3)	4,798(3.4)	4,751(4.6)	4,870(6.6)
- 전기·운수·창고·금융업	1,986(-0.3)	1,936(-2.1)	1,970(-1.3)	2,003(-0.2)	2,039(2.5)	2,034(4.5)	2,057(6.1)

주 : ()안은 전년동기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2월.

〈표 3〉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1999				2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863(3.4)	3,799(2.8)	3,818(2.5)	3,881(4.0)	3,957(4.6)	3,915(2.9)	3,924(3.4)
사무직	2,219(-8.2)	2,182(-15.2)	2,207(-9.9)	2,231(-5.3)	2,256(-1.7)	2,276(3.8)	2,306(6.7)
서비스·판매직	4,819(1.8)	4,748(-0.3)	4,764(0.7)	4,861(2.3)	4,949(4.3)	4,997(4.5)	4,955(4.5)
농림어업직	2,217(-6.2)	1,744(-12.8)	2,433(-8.3)	2,461(-5.0)	2,232(0.7)	1,648(0.5)	1,687(2.5)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7,162(6.2)	6,632(-1.5)	7,138(6.7)	7,306(9.7)	7,569(9.9)	7,294(11.3)	7,277(12.0)

주 ()안은 전년동기 및 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2월.

다(1999년 11월 공공근로취업자, 308천명, 12월 338천명).

나. 직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

2000년 2월 직업별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증가하였다.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782천명(12.0%), 서비스·판매직 212천명(4.5%), 사무직 144천명(6.7%)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직업별 취업자에서 남자는 농림어업직 2천명(0.2%)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497천명(10.9%), 서비스·판매직이 77천명(4.1%), 전문·기술·행정관리직 70천명(2.5%) 증가하였다. 여자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84천명(14.7%), 사무직 137천명(13.0%), 서비스·판매직 134천명(4.7%)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년동월 대비 농림어업직의 경우, 39천명

(2.4%), 사무직 30천명(1.3%), 전문·기술·행정관리직 9천명(0.2%) 증가한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42천명(0.8%),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17천명(0.2%) 감소하였다(〈표 3〉 참조).

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에서 비임금근로자는 1999년 2/4분기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오다가 3/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표 4〉 참조). 2000년 2월 중 비임금근로자는 7,330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4천명(2.6%) 증가하였다.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999년 매분기 증가세였던 것이 2000년 1월 들어 다소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 1월의 경우 1.7%, 2월의 경우는 3.1% 증가하였다. 자영업주는 1999년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비임금근로자	7,759(-0.6)	7,248(-2.6)	7,862(-2.0)	7,994(3.2)	7,930(2.3)	7,354(1.9)	7,330(2.6)
- 자영업주	5,841(1.1)	5,570(-0.1)	5,843(0.0)	5,963(1.8)	5,987(2.6)	5,694(2.0)	5,645(2.4)
- 무급가족종사자	1,918(-5.4)	1,678(-10.5)	2,019(-7.5)	2,031(-0.5)	1,943(1.5)	1,660(1.7)	1,684(3.1)
임금근로자	12,522(2.7)	11,857(-3.8)	12,500(2.3)	12,701(5.4)	13,031(7.1)	12,777(8.7)	12,819(9.6)
- 상용	6,050(-6.3)	6,030(-10.9)	5,989(-8.2)	6,044(-4.5)	6,138(-1.1)	6,094(0.4)	6,113(1.6)
- 임시	4,183(4.6)	3,976(-1.1)	4,122(2.6)	4,227(7.0)	4,407(10.0)	4,440(11.8)	4,481(13.8)
- 일용	2,289(31.9)	1,851(20.5)	2,389(42.5)	2,430(37.4)	2,486(26.8)	2,243(31.3)	2,225(27.9)

주 : ()안은 전년동기 및 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2월

1/4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1, 2월에는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는 2000년 2월 중 상용근로자 97천명(1.6%), 임시근로자 542천명(13.8%), 일용근로자 485천명(27.9%) 증가하였다.

라. 연령별 실업자 추이

실업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감소하였으며, 30대(198천명), 20대(186천명), 40대(123

〈표 5〉 연령별 실업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15-19	85(19.7)	113(26.2)	84(20.9)	78(17.3)	67(15.1)	101(18.9)	71(14.2)
20-29	452(10.2)	573(12.9)	465(10.5)	407(9.1)	367(8.2)	439(9.8)	407(9.1)
30-39	328(5.3)	445(7.2)	360(5.8)	283(4.6)	223(3.6)	232(3.9)	255(4.3)
40-49	276(5.2)	355(6.9)	297(5.6)	252(4.7)	198(3.6)	203(3.7)	230(4.2)
50-59	162(5.1)	204(6.9)	178(5.6)	154(4.8)	114(3.5)	115(3.8)	117(3.8)
60세 이상	49(2.4)	59(3.4)	50(2.3)	46(2.1)	42(2.0)	37(2.1)	42(2.3)

주 : ()안은 전년동기 및 동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2월

〈표 6〉 시·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99년				2000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8.7	4.6	4.4	4.8	5.3	5.3
수도권	9.7	5.2	5.0	5.5	6.0	5.8
7대광역시	9.7	5.6	5.2	5.6	6.3	6.2
9개도	7.6	3.7	3.7	4.1	4.3	4.4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3월 16일

천명)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 시·도별 고용동향

7대 광역시의 실업률을 보면, 부산이 가장 높은 7.3%이고, 광주 6.2%, 대전 6.1%, 인천 6.0%, 대구 5.6%의 순이며, 울산은 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9개도의 실업률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높은 5.3%이고, 강원, 제주 모두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6참조〉).

전월에 비해서는 20대(32천명), 15-19세(30천명) 연령계층이 감소한 반면, 40대(27천명), 30대(23천명)는 증가하였다. 10대, 20대 실업률은 전월대비 각각 4.7%, 0.7% 하락한 14.2%, 9.1%로 나타났다. 10대 실업률의 감소는 개학으로 인한 구직활동 중단에 기인한 것이며, 20대 실업률은 취업자가 전월 대비 37천명 증가함에 따라 예년과는 달리 전월 대비 0.7% 감소한 것이다. 30대, 40대 실업률은 취업감소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각각 0.4%, 0.5% 상승한 4.3%, 4.2%로 나타났다(〈표5참조〉).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월 대비 2.1% 감

소한 11.9%를 보였다(청년층 실업률, 1999년 12월 13.2%, 2000년 1월 14.0%, 2000년 2월 11.9%).

2000년 1월과 2월의 수도권 및 7대 광역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9개도의 동기간 동안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에 훨씬 못 미치게 나타났다.

2. 2000년 여성 실업대책

가. 1999년 여성 실업대책 평가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에 여성 참여자를 확대하고 여성 가장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 실업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여성 고용안정에 기여한 결과 1999년 2월 여성 실업률 7.2%에서 1999년 12월 여성 실업률은 3.8%로 크게 떨어졌다. 실업률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에서는 여성 우선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경영상 해고시 성차별금지)를 마련하여 여성 고용안정에 기여한 결과이다.

여성 특성별 실업대책으로는 첫째, '여성가장 일자리찾아주기사업'을 통하여 1999년 12월 19천명의 실직 여성 가장에게 창업 기회제공, 둘째, 신규대졸 여성에게 취업에 필요한 면접요령, 사이버취업정보 등을 안내하는 등 여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의 실시로 1999년도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행정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안정기반구축이 미비한 현실이다.

나. 2000년 여성 실업대책

정부는 2000년 실업대책에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정부지원 인턴제, 여성 가장 우선선발, 여성 참여비율 할당제(50%) 등을 통한 여성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 가장, 신규졸업여

성, 주부 등 여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여성 실업대책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 가장훈련(6,000명), 자영업 지원(600가구)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여성 가장일자리찾아주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규대졸 여성 취업창구 운영(인력은행 등), 대졸 여성 취업설명회(대도시 중심), 기능대학 여성 참여비율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우선 해고 되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점검 실시, 민간단체에 고용차별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여성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4월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출산 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 전후 유급 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가족간호휴가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